

# 대순진리의 종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崔 東 熙 \*

## 目 次

- I. 교단에서의 교리의 위치
- II. 한 교단에서의 교리연구
- III. 대순진리회의 교리연구

## I. 교단에서의 교리의 위치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따르면 “대순진리”(大巡眞理)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한종교집단(교단)의 이름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이 교단이 믿는 독자적인 진리를 뜻한다. 이론상으로는 “대순진리”라는 어떤 종교적인 진리(敎理)가 먼저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스스로 기꺼이 믿을 수 있는 종교적인 진리가 먼저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독자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어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교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새로운 종교적인 진리인 “대순진리”가 어떤 형식으로 알려지고 믿어짐에 따라 이 진리를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라는 교단이다. 흔히 교단을 부르는 이름에 따르면 “대순진리교”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대순진리회”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럴만한 근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 이웃나라 일본에 “創價學會”라는 교단의 이름도 있다. 물론 “000會”로 불리우는 교단이 적지 않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종교적인 진리는 그것을 믿는 교단이 형성되고 발전함에 따라 그 진리가 더욱 힘있게 되고 그 내용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져 가게 된다. 이런 점에서는 어떤 교리와 그 교단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형성된 종교집단에 있어서는 그 종교적인 진리도 그 교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꼽히게 된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종교집단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갖추게 된다. 첫째로 그 나름대로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교리를 갖추고 있다. 둘째로 서로 관계하는 신도들을 갖추고 있다. 셋째로 어떤 독자적인 종교행위의 양식(의식)을 갖추고 있다. 넷째로 그 나름의 종교적인 시설·비품·재산을 갖추고 있다. 더 간추려 말하면 하나의 종단은 그 나름의 교리·신도·의식·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도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집단으로서 위와 같은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이들 구성요소들을 종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종교적인 제도는 숭배(崇拜)를 위한 양식으로서, 곧 의식(儀式)으로서 발전한다. 그것은 동시에 다소의 관념(觀念)과 정의(定義)의 양식으로서, 곧 신앙의 내용으로서 발전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또는 조직체의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의 제도화과정은 지성의 차원·의식의 차원·조직의 차원에 따라 진행된다. 이들 세 측면은 발전하여 나아가는 단 하나의 과정의 세 측면 또는 관점이다.<sup>2)</sup>

여기서는 교단의 구성요소들을 한 종교가 안정된 종교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곧 어떤 종교가의 놀라운 “종교체험”(religious experience)이 안정된 독자적인 교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 전체적인 과정의 몇 측면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종교집단은 세 측면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종교는 세 측면에서 그 교단을 형성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다. 첫째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의 양식”, 곧 종교의 “의식”(cult)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둘째로 “다소의 관념과 정의”(ideas and definitions)의 양식, 곧 신앙내용의 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셋째로 “공동체 또는 조직체”의 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2) *the sociology of religion*, Thomas F. O'Dea, Prentice-Hall, Inc. 1966, 38~39쪽

이와 같이 어떤 뛰어난 종교가의 종교체험(카리스마적인 체험)의 세 측면에서 안정된 교단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종교의 제도화과정”(religious 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한다. 이 세 측면을 다시 간추려서 “지성의 차원·의식의 차원·조직의 차원”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세 차원에서의 제도화의 과정을 더욱 간추려서 “카리스마가 사상(thought)·실천(practice)·조직(organization)으로 옮겨가는 과정”<sup>3)</sup>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바로 베버(Max Weber, 1864~1920)가 말한 “카리스마의 일상화과정”(the routinization of charisma)을 좀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종교가 일반적으로 세 측면으로 제도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이미 성립된 교단으로서의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상·실천·조직”의 세 구성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의 종교집단은 교리·신도·의식·시설의 네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기 마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네요소도 위의 세 측면과 서로 통하여 있다. 이를테면 교리와 “사상”(지식의 측면)은 내용적으로 서로 통한다. 의식은 글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고 신도와 시설을 합친 것이 바로 “조직”과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종교집단의 구성요소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종교집단에 있어서 「교리」(사상, 지식의 측면)가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한 교단으로서의 「대순진리회」도 교리·의식·조직을 그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교리 및 교리연구의 의미를 주로 이해하여 보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교리가 한 교단의 생명을 구성하는 “지성”·“사상”·“관념과 정의”(觀念과 定義)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교리 및 그 연구는 바로 지성의 활동에 속한다.

본래 사람은 지성·감정·의지를 갖추고 있는 가장 빼어난 생명체다. 한 종교집단이 교리·의식·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정·의(知情意)를 갖춘 사람들이 구성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지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여 보면 한 교단에서 교리가 차지하는 위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이성적인 동물”이

---

3) 위와 같은 책, 39쪽

라고 하여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양 근대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성이니 생각하는 능력이니 하는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도 과학·기술의 위력 때문에 변함이 없다. 맹자(孟子)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사람의 본성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다.<sup>4)</sup>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 바로 지성이다. 이렇게 맹자는 도덕을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성을 강조하였다. 저 서양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을 수 있기 위해 알고, 알 수 있기 위해 믿으라”고 하여 지성과 신앙은 서로 꼭 필요한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현실적인 활동에서도 예로부터 “아는 것”(知)을 강조하여 마지않았다. 저 『손자』(孫子)라는 병법책에서는 “저편을 알고 제 편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知彼知己者, 百戰百勝. 『孫子』 謀功篇第三)고 하여 싸움에서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현실생활·철학·도덕·신앙에서 지성의 몫이 오히려 지나칠 만큼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사상)·정(신앙)·의(실천)의 조화 속에서 지성이 맡은 그 나름의 중요한 기능에 주목할 뿐이다. 지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감정·의지를 제쳐놓고 홀로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5)</sup> 곧 한 교단의 교리연구는 그 교단의 의식(儀式)과 조직의 이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 II. 한 교단에서의 교리연구

한 교단으로서의 「대순진리회」는 그 나름의 교리·의식(儀式)·조직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일 것이다. 곧 그 나름의 지성(敎理)·감정(儀式)·의지(實踐)를 갖추고 그 나름으로 보람있는 활동을 하는 생명체가 바로 교단일 것이다. 이렇게 지성을 갖춘 교단은 무엇보다 스스로

4) 『孟子』, 公孫丑 上 :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是非之心, 非人也)

5) the sociology of religion, Thomas F. O’Dea, 39쪽 : “...우리는 이들 세 측면을 한 전체의 부분이라고 본다.” 여기서 세 측면은 “지성의 차원·의식의 차원·조직의 차원”을 말한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교단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나름으로 지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교단은 그 교단의 진리내용(敎理)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그 나름의 독자적인 「신앙의 진리 체계(眞理體系)」를 세워 나가야 한다. 한 교단의 이러한 체계적인 지성활동(知性活動)을 우리는 「교리연구」(敎理研究)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실은 이러한 교단의 체계적인 지성활동을 「교리학」(敎理學)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에는 「신학」(神學, theology)이라는 독자적인 「그리스도교의 진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다. 카톨릭 쪽이건 프로테스탄트 쪽이건 그리스도교에서는 오늘날까지 「신학」을 그 교단의 필연적인 지성활동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도 그 안에 있는 여러 분파(이른바 宗派)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가르침과 가르침 내용(곧 敎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종학(宗學)이라고 한다. 유교에서도 경학(經學)이라고 하는 「유교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 왔다. 같은 경학이라는 이름 밑에서 그 교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서(經書)들을 연구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소 달랐다. 이를테면 대체로 한 대(漢代)의 경학은 경서들에 대한 언어학적인 해석(이른바 訓詁學)을 주로 하여 그 이해도 표면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송대(宋代)의 경학은 경서에 대한 내면적·철학적인 이해(이른바 性理學)를 주로 하였다. 다시 이들 안에도 이들 밖에도 분파라고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학파들이 있었다. 이렇게 유교에도 그 안에 일종의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학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마다 그 교리를 그 나름으로 연구 또는 재생산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이렇게 본다면 잘 알려진 세계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집단이 저마다 그들의 교리를 재생산하는 지성활동을 그 나름으로 전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 종교집단이 널리 알려지느냐 아니면 이름 없이 사라져 가느냐는 그 단의 교리와 교리의 재생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외적인 조건이 같다면 어떤 교단이 일어나느냐 아니냐도 그 교리와 교리의 재생산에 달려

6) 조선 후기에 퇴계학과 울곡학과라고 할 수 있는 분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늘의 교단들과 같이 저마다의 교리를 거의 배타적으로 전개하였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 교단의 교리와 그 재생산이 그 교단의 다른 활동과 떼어 수 없는 상호관계를 이룬다. 이럴 경우에도 그 다른 활동과의 상호관계에서 교리의 재생산활동이 차지하는 독자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날로 더욱 더 다원화하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종교집단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교단들 사이의 경쟁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각 가지 집단들과의 다양한 관계도 적절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무릇 경쟁이나 교섭에는 무엇보다 정보수집기능과 정보처리기능이 요구된다. 바로 이 기능이 지성활동인데 종교집단의 지성활동이 곧 교리의 재생산활동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종교집단이 모두 그 나름으로 그 교리를 내세우고 그 교리를 발전시키고 그 교리를 세상에 빛내려고 한다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집단의 지성활동이라 하였고 교리의 재생산활동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그 교단의 삶의 기능으로서의 「교리연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리는 교단의 생명의 필연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교리연구」라는 이름에 크나 큰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 더 나아가 이 「교리연구」를 경학(經學)·종학(宗學)·신학(神學)·교의학(教義學, Dogmatik)등을 편리하게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이 되기를 바란다. 좀 더 격식을 갖추어 「교리학」이라는 말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역시 간편한 「교리연구」가 더 마음에 든다.

한 교단에서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우선 교리(敎理)라는 말 자체가 문제다.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지음, 어문각, 1994)에서는 이렇게 풀이한다. “교리 : 종교상의 기본 이치” 그리고 교의(敎義)를 참고하라고 한다. 교의를 찾아보면 “종교의 주된 가르침”이라고 써어 있다. 교조를 찾아보면 “종교상의 신조”라고 써어 있다. 이것으로 일반적인 우리말에서 교리·교의·교조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조”는 다시 “종교상의 신조”(위 『우리말큰사전』)라고 되어 있다. 이 「신조」(creed)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교의 성립과정과 관련이 깊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고대카톨릭교회」(기원 140년 쯤부터 1054년까지)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원 4세기로부터 8세기에 걸쳐 가톨릭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내용이 공적으로 결정되었다. 바로 이 기간에 성부(聖

父)·성자(聖子)·성령(聖靈)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문제(그리스도論)를 중심으로하는 근본적인 신앙내용이 깊이 논의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온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렇게 크나 큰 권위가 주어져 있는 신앙내용이 곧 고대가톨릭교회의 기본적인 신조다.

이렇게 공적으로 확정되어 반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갖춘 종교상의 신조를 교의(dogma)라고 한다. 그저 일반적인 신조가 아니라 크나 큰 권위가 주어져 있는 신조를 특히 교의라고 부른다. 또 종교적으로 신조라고 할 때 그것은 큰 권위가 주어져 있는 신조를 말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의”와 “신조”는 뜻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교리는 “신조” 또는 “교의”도 뜻하지만 좀 더 널리 어떤 종단에서 믿고 있는 「지적인 내용」을 두루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좁은 의미의 교리는 주로 “신조” 또는 “교의”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의 교리는 저마다의 종단에서 믿고 있는 지적인 신앙내용을 통틀어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교리”란 어떤 종단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진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다소 편리한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라는 말이 잘 사용된다. 그러나 신조 또는 교의를 전제하지 않는 교리는 그만큼 종교적인 의미가 약하게 된다. 어떤 교단이 공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신조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교단의 교리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종교집단을 이루고 있는 종교들은 경전 또는 경전에 가까운 문서를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전 또는 문서에 담긴 신앙내용이 넓은 의미의 교리일 것이다. 그런데 경전은 어떤 언어로 표현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그 경전에 담긴 「종교적인 진리」(교리)를 이해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씌어져 있는 문장을 읽어서 얻어지는 경전의 이해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기 마련이다. 물론 저마다 그 경전을 읽고 얻어내는 이해에도 다소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교단의 교리 자체에 대한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교단의 신조가 그 교단의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신조는 그 교단에 의해 권위가 실려지면 실려질수록 그 경전의 이해 방향을 더욱 더 결정적으로 이끌

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교단의 신조가 그 교단의 경전을 이해하는 방향을 마련해 주며 따라서 그 교단의 교리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조 또는 교리가 그 교단의 경전(따라서 교리) 정신에 따라서 확정되었다는 점으로 보면 오히려 경전의 새로운 이해가 신조의 새로운 해석 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상 프로테스탄트교회에서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교회의 권위가 실려진 신조 또는 교의보다 경전(성서)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교회도 현실적으로 선교(宣敎)를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실천과 교화를 위해 신조 또는 교의가 다소 필요하기 마련이다. 다만 교회의 권위에 의해 운용되는 신조 또는 교의를 언제나 성서로 돌아가서 반성하려는 경향이 좀 더 강조될 뿐이다. 성서도 그때그때에 이해하는 어떤 방향이 있기 마련이고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활동경향은 어떠한 형식이든 신조 또는 교리와 같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대순진리회도 경전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방향은 교단의 활동방향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典經, 大巡眞理會 敎務部, 1974)도 이미 출판되어 있는 책이므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얻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무심코 읽는 사람은 그 『전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전경』은 대순진리회가 그 경전으로서 정성을 다하여 출판한 책이기 때문에 이 교단의 정신과 의지가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단의 정신과 의지의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전경』을 경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교단의 정신과 의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조 또는 교리다.

사실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 大巡眞理會 敎務部, 1969)에 “신조”(信條)라는 조목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조”가 종지(宗旨)·목적(目的)과 아울러 “교리개요”(敎理概要)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 같이 교리개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지·신조·목적은 다같이 그만큼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개요”란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열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지”라고 하면 불교적인 의미가 떠오르기 쉽고 “신조”라

고 하면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다. “목적”에도 구체적인 목적들이 있고 근원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틀어 “기본교리”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기본적인 교리도 그 범위를 필요에 따라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교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범위의 “기본교리”를 몇 영역으로 나눌 수도 있다. 말하자면 기본교리들을 신앙의 기본내용(신조)·수도의 기본방향(수도)·신앙의 기본목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교리의 범위와 그들의 분류 또는 체계화는 저마다의 교단에 따라 다소 다를 것이고 같은 교단에서도 그 발전 단계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또 교단의 형성 과정 쪽으로 보면 그 기본교리는 어떤 원천에서 어떤 형성 과정을 거쳤느냐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교단들의 내적·외적인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대체로 한 종단의 기본교리는 그 종단의 교조와 그 계승자의 놀라운 종교체험(카리스마)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런데 대체로 교단들의 이른바 “경전”(經典)도 바로 그 교조와 계승자의 종교 체험으로부터 유래한다. 여기서 경전과 기본교리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교단의 경전은 그 교단의 기본교리의 결정적인 원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기본교리는 그 교단의 현실적인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중대한 위기 속에서 그 교단이 살아남기 위해 내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교단의 의지가 그 단계의 기본교리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단계의 기본교리가 경전의 이해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교단의 현실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본교리의 중요성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경전의 형성에 이미 그 단계의 기본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신약성서』(新約聖書)에는 예수(Jesus, 기원전 4년쯤 - 기원 29년쯤)가 바로 그리스도(Christ, 유대의 예언자들에 의해 전해져 온 메시아)라는 기본교리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교단의 경전과 기본교리의 관계도 매우 미묘하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기본교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을 연구해야 하고 경전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교단의 전통과 현실을 잘 연구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교리연구는 원래 저 「경학」(經學)·「종학」(宗學)·「신학」(神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교단의 교리연구일 수밖에 없다. 저 「경학」은 기본적으로는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지극한 신봉 때문에 크나 큰 사명감을 가지고 펴나가는 지성활동일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신학」 또는 「교의학」(敎義學)은 카톨릭 쪽과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전개된다. 원래 교리연구는 각 교단의 필연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단과 교리연구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그 교단의 교리연구가 그 교단에 맹목적으로 이바지할 수는 없다. 교리연구는 지성활동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문의 분야에 속하며 그 자체가 독자적인 지식일 수 있다. 그 교단의 참된 신앙과 연구하는 사람의 순수한 지성이 상충 작용하는 경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리연구」는 어느 교단의 지성활동에 속하면서 순수한 학문에 속할 수 있다.

### Ⅲ. 대순진리회의 교리연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의 교리연구는 저 유교에서의 「경학」 그리스도교에서의 「신학」과 같은 것이다. 유교의 경서들·그 역사와 전통 등에 관한 연구는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이다. 그리스도교 쪽의 교리·전통 등에 대한 연구는 그 치밀한 체계와 종교적인 정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들 이외의 세계적인 종교들이 모두 놀라운 교리연구의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둘레에는 겨우 100년 안팎으로부터 몇 10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집단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이른바 새로운 종교인데 그 짧은 역사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른 큰 종교들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여러 종교가 이미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는 작은 새로운 종교들이 역사 깊은 큰 종교들을 부러워만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종교들은 대체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큰 종교들과 경쟁하기로 운명지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새로운 종교가 태어날 때 대체로 그 포부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 기세로 말한다면 작고 새로운 종교 앞에서 역사 깊고 큰 종교는 이미 넓고 운이 다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들이 막상 현실속에서 그 새로운 포부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큰 교단들의 움직임을 엿보면서 모든 것을 새로 꾸려가는 크나 큰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한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보다 독자적인 교리의 확립일 것이다. 물론 뛰어난 종교가인 교조와 그 계승자를 통하여 다소 기본교리가 마련되고 가르침도 다소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날로 커가고 또 커가야 하는 교단을 안으로는 교화하고 밖으로는 선양하기 위해서는 교리도 그만큼 넓고 깊고 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교단의 활동에 있어서 교리의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상에는 세계적인 종교들의 유명한 교리체계들이 여기저기에서 눈짓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교리를 체계화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교단에는 교조의 천재적인 종교체험(카리스마적인 체험)에서 유래하는 신앙이 있을 것이고 이 신앙에 힘입은 지성이라면 그 신앙을 위한 교리의 체계화는 어떻게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그 나름으로 독자적인 경전과 기본교리를 갖춘 새로운 교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한 교단으로서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여 왔다. 이제 종합대학교까지 운영하게 되어 새로운 차원의 발전도 바랄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정에는 그 나름의 「교리연구」라는 지성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리연구」는 지금의 발전단계에 걸맞은 넓이와 깊이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에서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체계적인 교리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리의 체계화를 위하여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를 중심으로 교리의 체계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대순진리회」의 본격적인 「교리연구」(혹은 교리학)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교단의 종교활동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적인 광범한 연구도 교단의 매우 중요한 과제

일 것이다. 새로운 교단들이 그 왕성한 의욕에 비하여 이 기초적인 연구에 제대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지나치게 본격적인 「교리체계」를 서둘러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튼튼하기 마련이다. 한편으로는 교리의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어 가고 한편으로는 신앙운동이 깊어져 가는 동안에 지성과 신앙이 상승작용을 하여 차츰 본격적인 「교리연구」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신앙의 대상은 “구천상제”(九天上帝)로 되어 있다. 이 구천상제는 요약해 말하면 “전지 전능한 하느님”이라고 한다. “하느님”은 우리 겨레가 아득한 옛날부터 믿어온 신앙의 대상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은 우리 겨레의 신앙 대상을 이어 받았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三, 취지(趣旨)에 따르면 “강증산 성사”(姜甌山 聖師)가 “구천상제”인 것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으로는 “구천상제”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강증산”으로서의 구천상제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구천에 있는 상제와 “이 세상에 오신”(降世) 상제의 관계가 문제일 것이다. 이 관계야말로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종교철학에서 절대적인 존재와 인간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 영역에 속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여호와(Jehovah)와 예수(Jesus)의 관계를 어떻게 믿느냐가 그 가장 기본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대순진리회」에서 본격적인 「교리연구」를 위하여 「구천상제(하느님)와 강증산 성사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무엇보다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어떤 성급한 해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성실한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이 근본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자체가 바로 참된 신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구천상제”(하느님)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천상제”와 “강증산 성사”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속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기본교리가 이른바 “종지”(宗旨)일 것이다. 『대순진리회요람』 “六, 宗旨”에 따르면 “종지”에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 같은 네 조목이 있다. 먼저 “종지”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

이다. 여기서는 대충 그 문제되는 점만 살펴본다. 종지라는 말은 한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요지」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한 분파(分派, 곧 宗派)의 요지」를 뜻한다. 또 「근본적인 취지」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대순진리요람』에서 말하는 “종지”는 불교의 용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안에 있는 분파(곧 宗派)들의 가르침의 요지(근본취지)를 흔히 “종지”라고 불러왔다. 이런 점에서는 종지라는 말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 종지와 “신앙의 대상”의 관계가 문제다. 곧 “구천상제”(하느님)와 네 종지는 어떠한 관계인가? 위 『요람』 “四, 연혁”(沿革)에 따르면 “강증산 성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리가 곧 “종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미묘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강증산 성사(곧 구천상제)가 세상을 손수 구원하기 위한 방식이 곧 네 가지 진리인가? 이 경우에는 상제 자신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위한 설계도가 바로 “종지”일 것이다. 다음으로 상제가 인간에게 네 가지 진리를 가르쳐 인간이 스스로 이들을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하게 하는가? 혹은 네 가지 진리는 상제 자신의 구원 기준이기도 하고 인간이 스스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덕목(德目)이기도 한가? 이러한 「상제와 “종지”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신중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네 가지 진리(곧 종지)의 기본의미와 그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다. 이 문제도 다양한 측면으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네 가지 진리를 상제가 인간에게 가르친 실천요목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은 결국 자연과 인간의 원만한 조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대자연이 일사불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인간이 그 음양의 조화를 깨닫고 거기에 따르면 대자연과 인간이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神)과 인간의 참된 종교적인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결국 상제일 것이다. 여러 신명(神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은 “전지전능한 하느님” 곧 구천상제의 기능(곧 權能)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인조화”는 바로 상제와 인간의 참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네 가지 종지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인간과 인간의 원만한 관계를 밝혀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표면적인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역시 상제를 굳게 믿고 정성을 다하는 참된 신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종교적인 인간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네 가지 “종지”에 있어서 공통으로 전제되는 근본적인 특성일 것이다. 상제에 대한 참된 신앙이라는 근본전제 위에서만 인간과 상제·인간과 자연·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참으로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근본적인 신앙정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위 세 “종지”의 목적이며 나아가서는 종교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도가 통한다”(道通)고 할 때 그 “도”(道)는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이 진리는 다름 아닌 바로 앞 세 진리(종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이른바 네 가지 종지를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라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제에 대한 참된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네 종지의 내용 해석에 있어서나 네 종지의 상호관계의 체계적인 해석에 있어서나 상제의 신앙이라는 근본관점에서만 본격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리연구」를 위해서는 많은 기초적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지난날의 큰 종단의 교리들을 참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근래의 격변하는 종교적인 움직임에 대한 날카로운 정보분석일 것이다. 어쨌든 바라는 목표는 본격적인 「대순진리회」의 교리연구지만 우선은 그 학문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